

NYPI YOUTH REPORT

vol.2 2009. 06

발행일 | 2009.06.25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쇄 | 엘에스컴

홈페이지 | www.nypi.re.kr



- 04  **미래세대 리포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_ 오성배 교수(동아대 교육학과)
- 14  **조사통계 리포트**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_ 김경준
- 22  **정책제언 리포트**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의 방안_ 양계민
- 26  **해외동향 리포트** 미국의 다문화교육_ 이창호
- 32  **청소년 리포터** 33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 _ 이지은(대원외고)
39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제안_ 차현정(대구 함지고)
49 우리의 인식변화는 한 소년, 소녀의 미래이다_ 김지민(부산국제외고)
- 54  **칼럼** 일본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지원_ 이창호
- 56  **NYPI NEWS**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 오성배 교수

1. 머리글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주 여성과 그 자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로 이주해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그 자녀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08년도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은 891,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2007년도 대비 23.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자는 640,11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국내 총 결혼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0년도에 1.2%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전체 혼인 가운데 11.1%(36,204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약 40% 가량이 국제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1987년도 6,40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437,727명으로 20 여 년 사이에 7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직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정부 부처 간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취학률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재학생에 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일 연령의 자녀들은 약 30%가 많아 이들이 미취학 상태인 것으로 설명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 상의 차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 조사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는 학교를 통하여 구두 조사로 진행되고, 행정안전부 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조사로 이루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는 구두 조사이기 때문에 축소되어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행정안전부 조사는 재혼 가정의 초혼기 출생 자녀들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분류

1)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올해(2009년)부터는 관계 부처간 합동조사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편의 초혼기 자녀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¹⁾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이른바 '불법체류자'²⁾ 신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정착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모국에 있던 자녀를 불러들이는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간의 혼인(또는 동거)을 통하여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브로커를 통하여 입국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자의 경우 별도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오성배, 2009).

이와 같은 이유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제결혼 증감 추이와 이주 노동자 유입의 추이, 정부부처별 발표 자료 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58,00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만6세 이하가 33,140명(57%)을 차지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외국인 가정 자녀 일반 정규학교 재학생 수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자녀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자녀 가운데 국내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학하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출신국이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는 것 등을 토대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 발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2008년 현재 총 1,402명으로 2007년에 비해 15.9%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2008년 기준 107명)에 비하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314명)가 많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981명)는 훨씬 많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사회에서는 인종·민족 등의 차이와 차별로 인하여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2세대들은

2) '불법체류자' 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단지 비자의 기한이 지났을 뿐이고, 한국의 3D 업종의 주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자원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불법' 이라는 가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과체류자' 또는 '미등록 노동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이나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특히, '불법' 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그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과 그들이 잠재적인 문제아로 낙인찍힐 우려도 존재하기에 좀 더 신중한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소외현상으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들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하여 다문화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Banks(2002)는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교육기관에서 평등한 성취경험을 갖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며,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교육이 아닌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소수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nnett(2006)은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그것이다.

한국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소수집단을 배려하여 다인종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모든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오성배, 2006a). 아직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기 이전 단계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새롭게 유입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도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적응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여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윤형숙, 2004; 설동훈 외, 2005 등), 그 자녀들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장과정에서 언어발달과 정체성 형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 기회를 적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오성배, 2005; 오성배 2006a; 조혜영 외, 2008; 이재분 외, 200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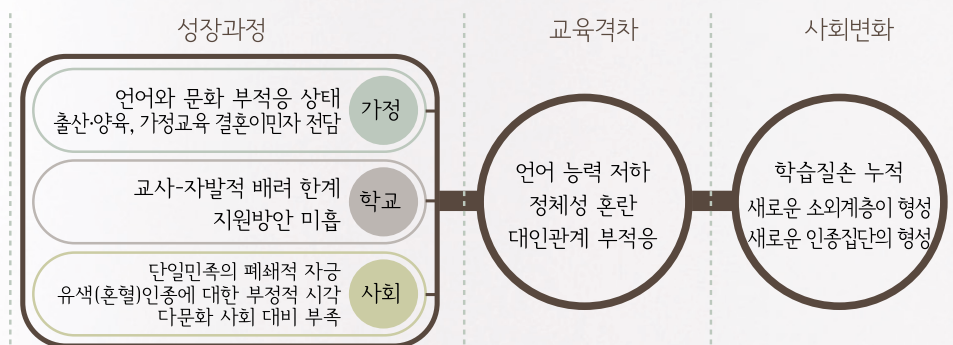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몰릴 위기에서 저임금 3D업종에 투입되

3) UN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의 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정부도 1991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제2조, 제9조, 제10조, 제28조).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2008년 2월). 이 개정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도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제19조), 중학교의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전입학이 허용되고(제75조),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전형 이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82조). 이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불법체류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배분받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4)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실현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출생에 따라오는 우연한 결과(accidents of birth)로 국내에 유입된 것이고, 국내의 여느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출발점이 뒤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補償)적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들도 사회의 당연한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 평화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사회가 평화적으로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예절과 도덕, 규범을 준수하면서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또는 머무르기를) 기대한다면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성인이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정주(定住)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역설적이게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과거 단순노무직을 넘어서 이른바 3D 업종의 숙련공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9. 1. 17일자 기사 참조). 이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련(経団連)이 2007년, 2008년에 잇달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국내 수요의 축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주(定住)의 필요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毎日新聞 2008. 10. 13일자 기사 참조). 이 외에도 국제전문가 또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국가 사이의 가교(架橋)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오성배, 2009).

어 체계적인 언어 습득과 문화적응의 기회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석원정, 2002). 이주 노동자 자녀들도 부모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언어와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정원, 2006; 이민경 외, 2009; 오성배, 2009). 특히,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불법체류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우리 사회는 인도적 차원, 사회 평화적 차원, 경제 발전의 차원 등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⁴⁾

다문화 관련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수용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김이선 외(2007)의 연구는 한국의 성인들은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하여 혈연이나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저연령 고학력층은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관심은 높음에 비해 개도국에 대한 관심은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경숙 외(2007)의 연구도 선호하는 외국인에 대한 분석에서 성인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모나 교사의 다문화 수용태도도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문제

요컨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응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미비하고,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태도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연결되어 새로운 소외계층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크다(〈그림 1〉 참조). 다문화교육이 소홀히 진행된다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 비중이 4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시골 지역의 교육기회 불평등 상황(오성배, 2006b)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고,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면(설동훈 외, 2005)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변화를 위한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교육 진행과정의 문제점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평생교육기관, 종교·시민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과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2012년까지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지원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관(시설)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이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정책의 초기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으나, 시행착오의 축소와 다문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의 일관된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격리’, ‘흡수’, ‘동화’, ‘공존’ 등의 형식논리의 기계적인 구분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방향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가 취학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불법체류가 단속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견된다(오성배, 2009).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부처별·지자체별 담당 조직과 예산도 아직 안착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에 따라선 다문화담당 부서가 해마다 바뀌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별 다문화담당 부서는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단체장의 문제의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직체계와 예산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다문화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목적의식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 사업의 체계성과 연속성,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한 추진 노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 박성혁, 2007; 이재분 외, 2008; 양계민 외, 2008 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계획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정책(사업)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으며, 단순한 시혜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복’과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벤트 행사에 정보가 밝은 다문화가정은 이른바 ‘복지쇼핑’(효과는 확인되지 않은)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의 부재와 부처별·지자체별 지원체계와 대상이 혼잡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사업)의 성과를 담당 공무원 또는 주관기관 실무자들의 추진의지나 진정성, 사회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문화이해교

육의 진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다문화이해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적응시키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아동·청소년과 시민 등의 수용태도 전환을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평화적 공존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온당하지 않다면 이질적인 구성원과의 불안한 동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외계층에서 나아가 새로운 인종집단으로 묶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진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는 담론은 우리 안에 들어온 또 다른 ‘우리’를 이해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나, 단순 체험 위주의 다문화이해교육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의 진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로도 나타난다. 양계민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을 차이검증한 결과 다문화사회의 긍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 변인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현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용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피상적인 수준의 일회적 활동에 불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의식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태도에 관련된 조사들도 대부분 이른바 ‘표면적’ 수준의 조사에 그치고 있다. 이성적이고도 덕적인 수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답변을 분석한 경우, 그들의 다문화 수용태도가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기존 조사의 내용을 재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내면의 잠재적 의식은 표면적 의식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표면적’ 의식보다는 ‘잠재적’ 의식의 분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수용태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외국 다문화교육 정책의 시사

미국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대체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비주류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다문화교육이 전개되고 있다(Ornstein and Levine, 2006). 미국의 다문화교육 전문가들은 주로 소수 민족을 배려한 교육기회 배분 방안과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상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방식의 특성, 방언(흑인 영어)의 교육적 의미,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의 시행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이에 따른 재정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민족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arter and Chatfield, 1986; Fillmore, 1997; Mora, 2003; Torrey,

1983).

영국 정부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소수 민족을 위한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체제에서도 소수 인종에 속하거나 소수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 민족의 교육기회와 관련된 연구들도 공교육을 통하여 영어에 서툰 초·중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와 학업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여 쟁점화 하기도 한다(McEachron & Bhatti, 2005).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배분 방안과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Stephen Lawrence Inquiry' 보고서(Macpherson, 1999)의 제언을 토대로 2000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모두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형성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와 서로간의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 공동체 시민의식의 결집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시도된 것이다(McGhee, 2003).

일본에서는 정부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니케이진' 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니케이진' (日系人)은 넓은 의미에서 일본과 관련된 '범(凡) 일본인' 을 지칭한다.

'니케이진' (日系人)을 위한 교육기회 배분의 연구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일미군과 일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메레이시안' (Amerasian),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이주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에 대한 언어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재정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혼혈 자녀에 대한 어머니 출신국의 문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照本祥敬, 2004; 佐藤郡衛, 2001; 野入直美, 1999; 森茂岳雄, 2005). '이(異)문화 이해 교육' 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들은 주로 외국인에게만 일본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말고 일본인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소수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水越敏行·田中博之, 1995; 山脇啓造, 2005; 佐忠久, 2003).

이상에서 살펴본 세 국가의 다문화 교육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공통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수 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시행이 그것이다. 우선, 소수 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의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 집단들을 배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도 세 국가 모두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소수 집단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없애고,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며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도록 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실태를 근거로 하고,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이 마련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다문화교육의 방향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통합의 핵심 열쇠는 ‘다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를 증진시키는 과정도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기에 그렇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일방적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평화,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정책과 제도에 스며들 때 보다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앞서 언급한 실태의 문제점과 외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들은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인권 존중 차원의 역진적 기회 배분은 물론이고, 성장 과정에서 격차의 누적을 통한 새로운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수련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교육복지’ (방문교육), 다문화 특별(디딤돌)학급의 확대, 다문화 대안(디딤돌)학교의 설립 지원,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입학 기회 확대, 소수집단 외국인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격차의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낮은 연령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기간이나 날짜를 정하여 선심 행사하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임을 명시해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상적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 가운데 장점을 살리는 역량개발 과정을 통하여 능력이 ‘절반’(half)이 아닌 ‘두 배’(twice)가 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 주류집단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이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저변에는 여전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 신념이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적 자궁과 유색(혼혈)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 불안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특히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의 평화적 상생 의식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와 아동·청소년수련시설(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단순체험위주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가급적 낮은 연령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견을 해소하는 데 더욱 긍정적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할 정부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병행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태도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는 결코 일부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며, 오천년 이상 이어온 ‘단일민족’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차대한 화두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중심에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있다. 그들이 평화적으로 다문화를 영위하고 공존하기를 바란다면 지금이 그러한 성장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적기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김이선 · 황정미 · 이진영(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3호, pp. 95-129.
- 박성혁(2007).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석원정(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교육비평, 제10호, pp. 170-182.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양계민 · 정진경(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3호, pp. 61-83.
- 오성배(2006a).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 (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4호, pp. 137-157.
- 오성배(2006b). 도시와 시골의 학교교육. 한국학술정보(주).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출간 예정 논문.
-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 서울: 한울.
- 이민경 · 김경근(2009).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전략” 한국교육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 이재분 · 강순원 · 김혜원(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숙 · 정기선 · 이지혜(2007). 다문화 교육 정책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조혜영 · 서덕희 · 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2호, 105-134.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 행정안전부(2008). 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山脇啓造(2005). 多文化共生の学校づくり : 横浜市立いちょう小学校の挑戦. 明石書店.
- 森茂岳雄(2005). 立民族学博物館を活用した異文化理解教育のプログラム開発. 国立民族学博物館.
- 水越敏行・田中博之(1995). 新しい国際理解教育を創造する : 子どもがひらく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ミネルヴァ書房.
- 野入直美(1999). “アメラジアン 교육權—沖縄發の教育運動.” 人権教育, 7, 6-14.
- 照本祥敬(2004). “多文化共生の可能性を考える—「アメラジアン」をめぐる経験から.” 社会文化研究, 7, 22-38.
- 佐藤郡衛(2001). 国際理解教育 : 多文化共生社会の学校づくり. 明石書店.
- 住忠久(2003). グローバル教育の新地平 : 「グローバル社会」から「グローバル市民社会」へ. 黎明書房.
- Banks, J.A. (1994). An Instr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Bennett, C. I. (2006).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USA, Person Education Inc.
- Carter, T.P. and M.L. Chatfield, (1986). Effective bilingual school,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November 1986, 200-232.
- Fillmore, C.J. (1997). A linguist looks at the Ebonics debate. www.cal.org/ebonics 에서 2006. 5. 25 인출.
- Macpherson, W. (1999). The stephen lawrence inquiry. Parlia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by Command of Her Majesty.
- McEachron, G. and G. Bhatti (2005). Language support for immigrant children: A study of state Schools in the UK and US.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18(2), 164-180.
- McGhee, D. (2003). Moving to “our” common ground - a critical examination of community cohesion discourse in twenty-first, century Britain. The Sociological Review 2003, 376-404.
- Mora, J.K. (2003). A road map to the bilingual education controversy. <http://coe.sdsu.edu/people/jmora> 에서 2006. 6. 18 인출.
- Ornstein, A.C. and D.U. Levine (2006). Foundations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Torrey, J.W. (1983). Black children's knowledge of standard English.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Winter 1983, 627-643.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경준

1. 서론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주민들의 규모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3월에 보고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 여 명에 이른다(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7).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 9-2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5년에 총 380명, 2006년에는 총 469명이 입국하였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무연고 청소년들의 입국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5명에 불과하다가 2007년 6월에는 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일부, 2007).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부담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로 전환하고 지원방식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 또는 저임금 취업 등 취업상황의 어려움은 곧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저소득계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 청소년으로서 갖게 되는 지위에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모나 선배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 사례는 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청소년 문제 행동에 가담하게 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의 바람직한 정착의 문제이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으로, 진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조사하였다.

1)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고유과제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 III’에 기반을 둔 것이다.

2. 조사방법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학 및 취업 실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 주체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들의 진로상황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규학교, 한겨레학교, 대안학교 학생을 모집단에 비례해서 300명을 표집하였다. 현장전문가의 경우에는 정규학교, 한겨레학교, 대안학교 이외에 복지관, NGO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한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0명을 임의로 할당 표집하였다. 조사내용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의식, 진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였으며, 현장전문가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학업문제와 필요한 지원, 진로문제와 개선사항, 취업문제와 주요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의식

북한이탈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관련 자기이해, 진로목표 설정 정도, 진로확신 정도, 진로준비 정도, 진로자신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기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학 혹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다(65.0%).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 미만(46.8%)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목표 설정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경우는 56.1%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장래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36.4%,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막막하지 않다는 응답은 42.5%,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는 응답은 38.9%,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고 한 응답은 32.9%로, 약 30~40%의 청소년들만이 진로가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는 목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확신과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불안(진로 불안 49.6%, 직업 불안 46.0%)을 느끼고 있었고,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에 대한 의심도 어느 정도(30.0%) 있었으나, 선택한 일에 대한 자신감(64.3%)과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58.2%)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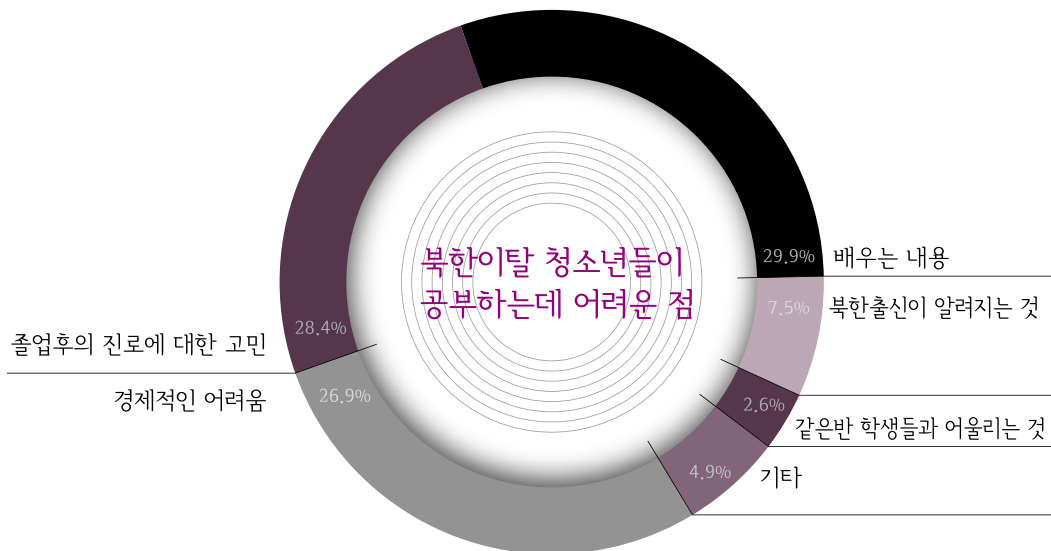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 응답자는 64.3%,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0.4%, 진로 관련 자료수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53.2%, 책이나 신문 등에서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2.1%, 원하는 직업세계의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72.9%로, 많은 청소년들이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취학, 취업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5년간의 전망을 찾아낼 자신감(35.7%)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흥미와 관심에 맞는 진로 선택에 대한 자신감(49.6%),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도서관) 정보를 찾아낼 자신감(63.5%), 관심분야의 직업인과 대화를 할 자신감(62.1%) 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 및 욕구

(1) 학업경험 및 진학욕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 중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29.9%)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28.4%), 경제적인 어려움(26.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학업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46.5%)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데 비해,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46.3%)을, 그리고 한겨레학교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한겨레학교 학생 60.0%, 대안학교 학생 48.1%)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학교 유형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학교 유형을 희망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한학생과 특별한 차이 없이 함께 다니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68.8%)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처음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17.3%), 북한출신끼리 공부하는 학교(7.4%), 김정고시 학원(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한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학

업의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능력이 허락되면 하루 빨리 남한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차선책으로는 일시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공부한 후에 어느 정도 적응되면 남한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것 등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음 남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학년에 대해서는 실력(51.3%)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나이(36.0%), 북한에서 다녔던 학년(7.6%)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 학년에 대해서는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한겨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이도 40%가 선호하고 있어서 실력과 함께 나이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6년제 대학 졸업(44.9%)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업 이상(31.0%), 2~3년제 대학 졸업(13.1%) 등으로,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4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을 원하고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44.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34.6%), 사회적 대우를 위해서(12.1%),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2.9%) 등으로 나타났다.

(2) 일자리 경험 및 욕구

북한이탈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일자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9.9%로,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일자리 경험(11~15%)(청소년백서, 2007: 33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학교유형별로는 대학생의 60.0%가 일자리 경험이 있었고, 대안학교 학생들의 50.0%, 일반 중·고등학생의 31.1%, 한겨레학교 학생의 4.0%가 일자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종류는 매장관리·판매(게임방, 마트, 서점 판매 등)(25.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당관련업무(식당보조, 서빙, 커피숍 등)(21.4%), 배달 업무(피자, 신문 등)(12.2%), 제과관련업무(8.2%), 사무업무(8.2%), 서비스업무(8.2%), 제조 및 건축업무(공장노동, 일용직 등)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충당(55.2%)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험 쌓기(20.7%), 학원비 충당(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용돈 부족, 여가시간활용 등이 가장 중요한 아르바이트의 이유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청소년백서, 2007:340), 아르바이트 목적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한 기간은 6개월 이하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2개월 이하가 11.5%, 36개월 이하가 3.1%로 나타났다. 일을 찾게 된 경로는 인터넷 및 일용직 알선지(54.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 소개(29.1%), 친인척 소개(11.6%) 등의 순으로, 공식적인 경로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나 친구, 친인척 등을 통해서 찾고 있었다. 일을 그만 두게 된 이유로는 학업관련 이유(54.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힘들어서(18.3%), 시간 부족(8.5%), 보수문제(7.3%)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의 경우에는 북한에 있을 때는 교사(12.9%)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 약사(8.1%), 군인(7.6%), 기술자(7.1%), 공무원(6.3%), 사업가, 전문경영인(6.1%), 경찰(4.5%), 의상디자이너(4.3%)등의 순이었다. 한편, 남한에 온 이후로는 공무원(11.8%)과 회사원, 은행원(11.8%)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가, 전문경영인(9.2%), 기술자(7.9%), 판사, 변호사, 검

사 등 법조인(6.6%)과 의사, 약사 등 의료인(6.6%), 교사(5.3%), 방송관계자(5.3%), 의상디자이너(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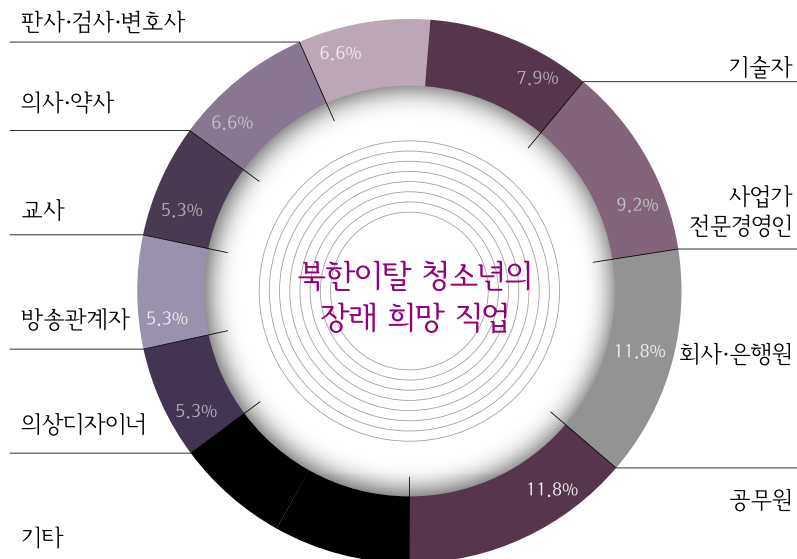
남한 학생들의 희망직업과 비교해보면, 남한에 온 이후의 희망직업보다는 북한에 있었을 때의 희망직업이 보다 남한학생들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3) 진로정보 및 진로교육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59.4%)이 진로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로는 인터넷 등(38.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교(20.3%), 신문, 벽보 등의 매체(10.5%), 선후배 및 친구(9.4%), 가족이나 친지(7.2%)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54.7%가 진로교육 경험이 있었는데,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학교(52.6%)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나 복지관(24.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6.0%), 종교단체(4.3%), 상담센터(3.4%)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40.9%)가 불만족하는 경우(13.2%)보다 많았다. 진로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26.1%)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체험기회가 없었다(26.1%),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직업전망(25.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진학정보(19.5%), 취업정보(15.1%), 직업체험기회(12.1%) 등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향후 직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학업문제와 필요한 지원

(1) 학교 및 학업 적응

현장전문가들의 84.0%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및 학업 적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 및 학업 적응을 잘 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업부진(48.5%)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오랜 난민 생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36.8%) 등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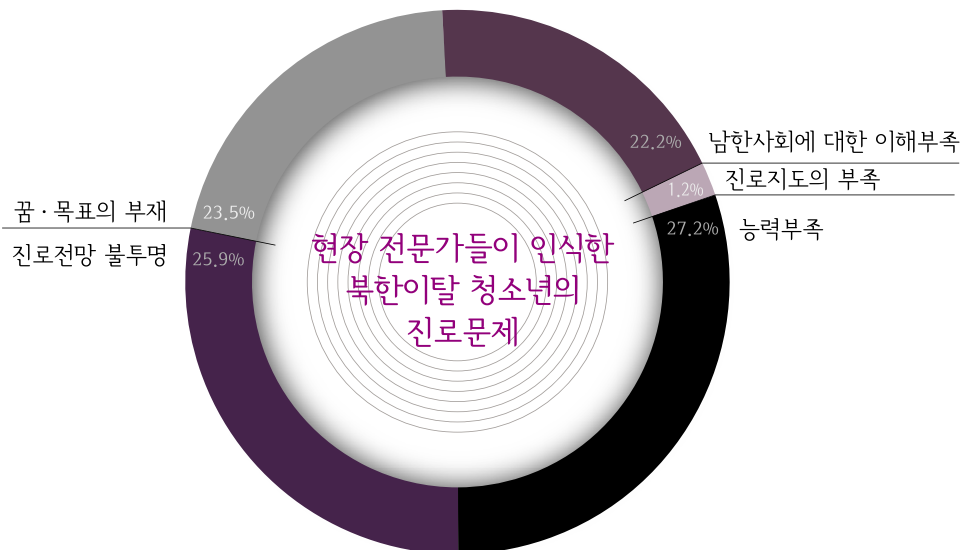
(2) 학교생활 및 학업개선 지원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98.7%)이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실무자의 역량강화(96.1%), 정규학교에서의 지원제도 활성화(88.8%), 대안학교의 활성화(60.3%), 특성화학교 수의 확대(55.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도 상담 및 심리치료(30.0%), 사회적응프로그램(22.0%), 특수교육과정(14.0%), 경제적 지원(8.0%)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진로문제와 개선사항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27.2%)이고, 그 다음으로 진로전망의 불투명(25.9%), 꿈이나 목표의 부재(23.5%),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22.2%) 등이었다.



진로지도 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습능력의 부족(40.0%)이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능력의 부족(22.5%), 당장 돈 벌 수 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10.0%) 등 이었다. 한편, 진로지도 시 기관(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적인 능력 부족(35.8%)이며, 그 다음으로 정보 부족(23.5%), 예산 부족(18.5%), 프로그램 부족(1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 문제 해결 및 진로지도 시 필요한 사항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취업능력의 향상(42.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33.3%), 동기유발(1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전문가가 생각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취업정보(8.6%), 진학정보(3.7%)보다는 적성, 흥미 등 자기이해(42.0%)와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35.8%)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취업문제와 주요 고려사항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채용기관 사람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27.8%)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의 부정확성(24.1%), 구인정보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17.7%) 등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능력 함양(44.6%)과 사회적응능력 향상(37.0%)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 취업지도 프로그램의 개선(11.1%), 특성화 교육기관 확대(4.9%)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경우에도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58.0%)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갈등해결력(24.7%), 인간관계능력(12.3%) 등도 중요한 자질로 보았다.

4. 결론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와 욕구, 그리고 향후 진로문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과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살펴보면,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고,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 등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로목표 설정이 되고 있지 못하며, 원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진로에 대한 의욕이나 욕구가 높지만 정확한 진로정보나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학업과 관련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를 살펴보면, 학습능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학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희망하는 학교는 남한학생들과 함께 다니는 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

며, 학교배치는 실력과 나이가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나 학습능력이 떨어져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일과 학습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러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일자리 경험은 남한의 일반 중·고등학생들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으며, 절반 이상(55.2%)이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용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남한의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희망직업으로는 북한에 있을 때는 교사, 약사 등을 선호하여 남한의 청소년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남한에 온 후에는 교사보다도 의사, 회사원, 은행원, 사업가, 전문경영인 등을 선호해서 탈북 이후에 희망직업에서의 변화를 나타냈다. 진로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것으로,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시하는 남한의 학생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북한이탈 청소년과 그 가정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현장전문가들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대부분(84.0%) 동의하고 있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 학업부진과 오랜 난민생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지적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의 역량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현장전문가들은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업능력과 사회적응력의 향상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진로지도 시에 자기이해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의 함양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취업정보 제공 시 취업제공기관들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채용기관 기관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의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양계민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화 되어간다는 말은 크게 새로운 말이 아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국제결혼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흔히 다문화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살아왔고 문화적 인증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온 경험이 없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동안에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던 다양한 문제들이 겹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나 노동착취, 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가정폭력, 인권침해의 문제, 국제결혼이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학교적응 문제, 언어능력 부진 문제, 정체성 혼란의 문제, 새터민들의 적응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다문화교육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교

육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 실제 많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 국내 다문화교육의 현황 |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다문화교육들은 대부분 소수집단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 풍습, 전통예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가르치고 지역 문화재 탐방한다든지 청소년들의 경우 학습지도나 멘토링을 한다든지 그 외에 컴퓨터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소수자들이 주류 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문제는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닌다. 첫째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자가 주

류집단에 동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를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문화교육이라는 것이 다양한 가치와 규범이 갈등과 경쟁을 빚어내는 상황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편적이고 고정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 대한 지식 및 한국의 풍습, 가치, 그것도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전통적인 것들을 전수시키는 것이 다문화교육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자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문화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한 소양이나 태도, 타인의 인권존중, 문화간 이해능력제고 등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주로 다양성을 이해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그 내용이 주로 다른 나라의 음식, 놀이, 미술, 전통 등을 체험하거나 외국어 배우기, 다문화축제에 참가하기 등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의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다양성에 대한 성찰적 이해라기보다는 피상적인 흥미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은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타문화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가치를 정립하지 않은 채, 단순히 타문화를 경험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민족 중심주의나 자문화우월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있지 못하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나름대로의 이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국제이해교육을 다문화교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다. 물론 국제이해교육도 가치 있고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다문화교육의 내용 중 아주 일부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지 국제이해교육이 다문화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다문화교육 내용의 이론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이, 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도 없이 제작자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에 근거하여 적당히 구성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개념, 목표, 방향, 구성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함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만 인식할 뿐 타당화된 교육내용 및 방법이 거의 없다.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 아직 프로그램의 개발이 초기단계이기에 타당화된 산출물을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통합적이고 거시적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고 소수자를 위한 교육, 다수자를 위한 교육, 통합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엮어서 효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에는 맥락 없이 개개의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다섯째,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내용에서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감 강화 및 차별에 저항하는 법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은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 또는 개별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지식전달에 국한되어 있고, 소수자로서의 정체감이 위협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는 차별에 대해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그러나 소수집단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육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제 주체들은 소외되어 있다. 관주도의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이기에 실제 주체가 될 수 있는 소수집단 및 일반 다수집단이 교육에 대해 실제 필요성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대상자이며 수혜자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사회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방향 및 정책을 구성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다문화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호주의 다문화교육 I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다문화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호주의 사례가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소개하고자 한다.¹⁾ 동화정책이 폐지되기 전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의 일반 학교에서는 비앵글로계 이민자들의 언어, 종교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문화적 다양성이 무시되거나 억압받았으나 이민자들이 동화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주류 호주인과 이민자들 간에 나타난 분열 양상은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까지 진단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에 호주정부는 백호 동화주의를 포기하고 새로운 이민·문화 정책의 근간으로 문화다원주의, 상대주의를 표방한 다문화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호주 정부는 법제정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학교 내에서 억압받기 보다는 유지 및 기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소개하는 정책을 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 초창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간단한 음식이나 의상을 중심으로 한 축제와 같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점차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단순히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유용한 자원으로 장려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힘썼고,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이민자 자녀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문제'라기 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과 자유무역 시대에 호주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학교 내 다문화 교육을 위해 연방, 주, 자치령 등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다문화 교육이 반영된 사회과학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을 1990년도 우선 교육사업으로 제안하였고 고등교육 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보조 프로그램을 교사, 도서관 사서, 변호사, 의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9년에 발표된 **21세기 학교 교육의 국가 목표 선언**(Declaration on National Goals for School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은 국가 교육 정책이 공동체의 결집과 문화적 필요로움을 도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4월에 애들레이드에서 주정부, 자치령, 연방 교육부 장관들이 함께 모여 **교육, 고용, 훈련과 청소년에 대한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위선언문에는 학교 교육의 목표 중에서 학교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에서의 반차별적인 내용으로 **학교 교육은 사회적으로 정의로워야 하며, 따라서 학교 교육은 성별, 언어, 문화, 민족, 종교 혹은 장애를 근거로 한 부정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 혹은 지리적 위치로부터 발생하는 차이에 기인한 부정적 형태의 차별이 배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 교육은 각 지역의 법령 및 프로그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하모니 데이(Harmony Day)**와 같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이뤄나가는 사업의 예도 있다. **하모니 데이**는 1999년 3월 21일에 유엔에서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이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호주 국내적으로 창설되었다. 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날은 호주 정부가 서로 다른 인종, 문화 공동체 간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호주 내 존재하는 인종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화롭게 살기 이니셔티브(The Living in Harmony Initiative)**는 모든 호주인들이 호주사회 내에 팽배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하모니데이**가 포함된 주간에는 보통 호주 전역의 학교에서 주로 춤, 스포츠, 공연, 요리, 바자회 등

1) 호주와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2008년도 고유과제인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에 포함된 문경희 박사님의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뤄지고, 학생뿐 아니라 교사, 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그 중 빅토리아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 문화적, 언어적 다원성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등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으로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빅토리아주의 학교 내에서 문화적, 언어적 다원성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빅토리아주의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연방정부의 1975년 **반인종차별법**과 1995년 **빅토리안 평등기회법**을 중심으로 인종주의와 차별의 예와 그것이 어떤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의 예는 학교나 교육부의 종사자가 인종 때문에 학생의 입학에 거부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 수혜에 제한을 둘 때, 학생을 퇴학시킬 때,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때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다양성을 가르치는 학교의 제언이라고 하여 학교에서 **해야 할 것(Dos)**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 not's)**을 정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학생들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배제시키지 않으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대하는 가능한 태도 범위에 관해 논의하라. 그러면 그들은 범위를 벗어나는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다른 문화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은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라. 존중, 수용, 관용, 자유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춰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이, 태도, 존중, 정의, 자유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라** 등은 **Dos**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인종주의 편견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말라, '피부색'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 '스파게티와 폴카' 식의 접근법은 오히려 더 많은 고정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족 그룹'과 같이 특정한 그룹을 부각시키지 말라, 차이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비주류'에 관해 이야기하는 '주류'를 기본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말라** 등은 **Don'ts**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적 시각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문화적 편견이 작동하는 과정을 통제해주

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게끔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호주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평가하며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교육과 법제도를 통해서 장려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또는 주정부, 자치령 정부 차원에서 법령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I 정책제언 I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와 호주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앞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시급하다.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후 다문화교육의 방향성도 좀 더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 교과목에 다문화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특정한 수업시간에 교과목처럼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체화되어야 하는 태도이고 가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교직원, 지역사회 등 전 국민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대상만 변화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 미성숙하고 비민주적인 태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집단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수용과 민감성이 없이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다문화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창호

1. 다문화교육 역사

미국은 국가성립시기부터 인종이 다양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사회는 상당 기간 동안 공교육체제를 통하여 이들을 ‘미국인’으로 개조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 공교육체제는 다양한 이민자 집단을 교육시키면서 미국의 정체성 발달에 중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이른바 ‘동화(同化)’에 대한 강요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판받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제가 주요 교육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전개된 인권운동도 진보적인 학교교육운동과 맞물려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개념을 확립하는데 일조하였다(장인실, 2006).

미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발전

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의 주류 문화와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미국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방식의 다문화 교육이 전개되고 있다(Ornstein and Levine, 2006: 373).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전문가들은 주로 소수 민족을 배려한 교육기회 배분 방안과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상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방식의 특성, 방언(흑인 영어)의 교육적 의의,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의 시행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민족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족적 배경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

1)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고유과제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부분으로 공동연구원인 최승희 교수가 집필한 것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하다고 주장한다. 소수 민족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적합한 학습 방식을 선택하여 상호작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남서부의 원주민이나 멕시코계 학생들에게는 경쟁적 상황을 배제한 협동학습이 효과적이며, 하와이 원주민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형식적 상호작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계의 경우 수업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는 학력신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John-Steiner and Smith, 1978; Losey, 1995; Tharpt et al., 2000; Klug and Whitfield, 2002; Wolf and Rickard, 2003; Kathryn and Kawakami, 1985; Yao, 1987).

그러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표준어의 강요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공교육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방언(흑인 영어)이 성취가 낮은 저소득층 흑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읽는 법을 배우는 단계까지는 흑인 영어를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표준어를 가르치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Harber and Bryan, 1976; Torrey, 1983; Fillmore, 1997; Gupta, 1999; Stein, 2002; O'Neill, 1997).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은 영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확대 시행되었다. 1968년에 의회는 이중 언어 교육 법령을 통과시켰고, 1974년 대법원은 Lau v. Nichols 관례에서 만장일치로 학교에서는 반드시 '교실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재정은 1969년 7천 5백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정책입안자들은 이중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 (1)학생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하며, (2)교육이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3)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자주 확인하고, (4)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종결하지 말고 항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교사들



이 (1)적극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2)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교육하며, (3)다른 과목과 영어 과목을 적절히 조화하며, (4)교육과정을 학생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경험에 연결시킬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Tikinoff, 1985; Carter and Chatfield, 1986; Montecel and Cortez, 2002).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즉 학생들을 초기에 영어 환경에서 학습하게 해야 영어를 숙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모국어어를 통한 초기의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Epstein, 1977; Porter, 1990; Chavez, 1991; Rossell, 2000; Ovando, 2001; Mora, 2003).

2. 다문화이해 교육과정

다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은 1960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 집단에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기 위하여 교과서와 참고 자료들은 개정되었다. 교원연수에서는 교사들이 다문화 학습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과 인종 집단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수업 방법을 공유하였다. 다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른 인종, 민족 집단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민족 타인종과의 원활한 대인관계의 형성, 문화적 자아정체성 형성, 타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 등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Wolpert, 1995; Almeida, 1996; Romo, 2000; Gay, 2003; Barton, 2004). 미국의 다인종 다문화사회 형성은 국가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하지만,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인종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이후에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된 것이다. 오랜 기간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은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도 없지 않지만, 주로 이주민들을 미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어교육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정책들은 동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공존’ (Quilt)을 통한 단계적 동화와 ‘흡수’ (Americanization)를 통한 전면적 동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이주민들의 이주 전 문화를 인정하고 일정 정도의 적응기를 거치면서 사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적응과 사회 유지 과정에 마찰을 적게 한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집단을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하는 것이 빠른 적응과 사회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문화 교육의 연구 초기에는 ‘흡수’를 통한 전면적 동화의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공존’을 통한 단계적 동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 정책의 지향점도 ‘흡수’와 ‘공존’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교연계 통합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조정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환경인 교육환경에서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제별로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학생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으며, 부모의 반대나 무관심 등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힘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학교라



는 체계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심리사 등이 배치되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문제들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적응과 성장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 실천 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의 강점을 살리는 것과 보호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적응성(resilience)을 높이는 것이다. 적응유연성, 혹은 탄력성의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적요인, 가족적요인, 외부 환경적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Hopps, Tourse & Christian, 2002). 개인적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자아상과 민족적 정체감을 통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것 등이 포함되고, 가족적 요인에는 가족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가족의 문화적 강점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 환경적 지원에는 교육체계 내의 교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차별과 소외,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

위라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이러한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개입을 활용하고 있다.

1) P.R.I.D.E(Promoting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학생들이 문화적 공통점과 상이함을 수용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P.R.I.D.E(Promoting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프로젝트는 총 10회 분량으로 방과 후 일주일에 2번 실시된다.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5-7명의 학생들이 학습과 상호작용 활동을 통하여 집단 내의 개별화와 다양성에 대하여서 토론을 하며,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가족의 독특한 배경에 대하여서 탐색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의 문화적 인식을 통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시킨다(Cancilla, 2002).

2) 협력학습을 통한 자존감향상 및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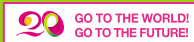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인종적·민족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교육학 분야에서도 주된 관심분야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주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협력학습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A.E.S.O.P.(Afrocentric Enhancement and Self-Esteem Opportunity Program)와 E.S.P.A.N.O.L.(Ethnic Studies Promote Achievement and Nurture Opportunities to Learn)를 들 수 있다.

AESOP는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문화적 인식과 자부심을 배우고,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통하여 임파워먼트 되기를 원하는 흑인 남학생들과 그 밖의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흑인 남학생들의 학업성취 뿐 아니라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SPANOL은 히스패닉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자부심, 자기 확신, 존중, 학업성취 등을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문화적 교육프로그램은 특정인종과 문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공통점은 문화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학업성취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Passport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에 대한 자료는 학교도서관, 백과사전 등을 활용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문화권 부모들의 경험과 정보 등을 활용한다. 부모들은 학급에 초청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적 정보와 경험들을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 각 국가에 대

한 기본적인 역사, 음악, 국기, 화폐, 언어, 유명한 음식 등을 탐구하고, 음식과 음악, 춤 등을 즐기는 문화축제도 함께 연다. 또한 그들이 배운 정보와 그 정보들이 각국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하며, 교과서적인 정보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국가인식을 하도록 원조하고, 차별에 대한 대처 전략 등도 가르친다.

참고문헌

-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 Almeida, D.A.(1996). Countering Prejudice Against American Indians and Alaska Natives Through Antibias Curriculum and Instruction. ERIC Digest EDORC-96-4, October 1996.
- Barton, R.(2004). Nets & Paddles. NW Education, Spring 2004. www.nwrel.org/nwedu.
- Gay, G.(2003).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December 2003.
- Fillmore, C.J.(1997). A Linguist Looks at the Ebonics Debate. www.cal.org/ebonics.
- Mora, J.K.(2003). A Road Map to the Bilingual Education Controversy. <http://coe.sdsu.edu/people/jmora>.
- Ornstein, A.C. and D.U. Levine(2006). Foundations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Ovando, C.(2001). Beyond 'Blaming the Victim'. Educational Researcher, April 2001, 29-31.
- Romo, H.D.(2000). Improving Ethnic and Racial Relations in the school. ERIC Review, Spring 2000, 25-26.
- Tikinoff, W.J.(1985). Applying Significant Bilingual Instruction Features in the Classroom. Inter-American Research Association.
- Wolpert, E.(1995). Using Pictures to Combat Bias. Rethinking Schools, Summer 1995. www.rethinking-schools.org.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2009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The Strategy for Youth Competence Development to Cope with Global Trends

2009. 06. 25(목) 14:00-18:00

장소 _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osted by_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후원 _ 보건복지가족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Supported b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YPI Reporter

청소년 리포터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청소년 기자단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 _ 대원외고 | 이지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제안 _ 대구 함지고 | 차현정

우리의 인식변화는 한 소년, 소녀의 미래이다 _ 부산국제외고 | 김지민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이지은

그들은 본래 천국에서 태어났다. 전 세계 사회주의 인민들의 천국이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서 태어나 지상낙원이라는 요란한 구호에 길들여지며 자라난 그들은 철이 들면서 점차 천국은 배고픈 곳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즈음 그들은 인민들 사이에 은밀하게 번져나가던 소문을 들었다. 사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다고, 바로 분단의 장벽 아래 남쪽에 온갖 호사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진정한 천국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였다. 배고픔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새로운 천국을 향해 탈출을 시도했다. 개중에는 탈출에 실패하여 국경수비대의 총격에 목숨을 잃거나, 붙잡혀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운이 좋았던 그들은 일부 조선족과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새로운 천국에 도착했다. 과연 그곳은 신천지였다. 배고픈 사람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즐거움이 넘쳐나는 한국(Republic Of Korea)은 과연 그들이 꿈꾸던 천국이었다. 그 천국에서의 달콤했던 몇 개월이 지나고, 하나원이라는 적용훈련소의 문을 나서면서 그동안 훈련소의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던 그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다, 그 천국에 그들의 것은 많지 않음을. 그곳은 그들의 천국이 아니라 저들의 천국임을.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그들의 두 번째 천국도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태어난 북쪽,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쪽 그 어디에도 천국은 없었다.

그들이 태어난 북쪽,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쪽 그 어디에도
천국은 없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민족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만났다. 15명의 탈북 학생들을 수용한 비교적 적은 규모의 대안학교다. 그러나 15명의 학생들이 서로 나이도 다르고 학업 정도도 달라 교장 선생님과 교사 2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교사들의 열의는 피부에 와닿을 만큼 진지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그들을 취재하는 내내 북한 사투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간혹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할 때 들리는 북한 억양을 제외하면, 모든 학생들이 완벽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듣기 좋은 완벽한 표준어에는 말 못할 아픈 사연들이 새겨져 있다고 중등과정을 이수중인 수임이는 말했다.

남한 생활 6년째인 수임 (16세, 가명)이는 오빠와 언니의 손에 이끌려 남한으로 왔다. 먼저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던 아버지의 주선으로 가족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어머니가 북한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혀 소식이 끊겼다. 그리고 얼마 후 오빠, 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머물던 아버지와 재회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머무는 중에 아버지마저 중국 공안원에게 체포당해 생사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수임이는 오빠의 손에 이끌려 죽을 것 같았던 배고픔과 숨막히는 도피 생활 끝에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남한으로 왔다. 처음 도착한 한국은 과연 천국이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신기했으며, 모든 것이 즐거웠다. 하루 세끼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주어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맛있는 과일들과 간식들이며, 신기한 이야기와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진 텔레비전, 길거리를 가득 채운 멋진 자동차들, 손에 들고 다니는 신기한 전화기 등 남한 사회는 북한의 말뿐인 지상낙원과는 달리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진정한 지상낙원이었다.

그러나 수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임이의 천국도 끝이 났다. 같은 학교의 친구들은 수임이가 북한 사투리를 하면 자지러지게 웃거나 놀리기 일쑤였고, 입학한 지 오래지 않아 수임이는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 외톨이, 소위 **왕따**가 되었다. 그때 수임이는 **모든 것이 남한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 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모두 남한 친구들과 같아지려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은 누가 보아도 남한 학생이며, 누가 들어도 남한 아이가 되었다. 이것은 비단 수임이의 경험만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겪는 아픔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편협

같은 학교의 친구들은 수임이가 북한 사투리를 하면 자지러지게 웃거나 놀리기 일쑤였고, 입학한 지 오래지 않아 수임이는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 외톨이, 소위 **왕따**가 되었다



한민족대안학교에서 만난 탈북청소년 수임과 옥희. 얼굴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 고개를 돌렸다.

함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생활에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북한 사투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표준 말을 배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대안학교의 고등과정학생인 옥희(19세,가명)는 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를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외국인 노동자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싸구려 취급함으로써 체면을 중시하는 탈북자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탈북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장벽이라고 말한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능력이 남한 학생들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교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남한의 말과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북한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 한 민족이었지만, 60년 남짓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언어는 생각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말과 글에 섞여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외래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북한의 언어에도 많은 외래어가 섞여 있지만, 북한의 외래어는 주로 러시아어이거나 중국어인 반면, 남한의 외래어는 주로 영어로 되어 있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대부분의 한자어를 순수 한국어로 바꾼 반면, 남한 언어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한자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한 문장 속에 보통 서너 개 이상의 외국어가 들어가 있어 탈북 청소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학교 **홈 페이지**에 들어가 **과제란**을 **클릭**해 거기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서 **프린트**해 **제출**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 ○○에 들어가 ○○○을 ○○해 거기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서 ○○○해 ○○하십시오’ 로 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급우들이 ‘어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과 **비디오 게임**을 하다 저녁으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라고 하면 탈북 청소년들 예겐 ‘어제 ○○방에서 ○○○ ○○과 ○○○ ○○을 하다 저녁으로 ○○을 ○○시켜 먹었다.’ 가 되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영어, 한문, 과학탐구, 사회탐구 등의 새로운 과목은 물론이려니와 똑 같은 민족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배운 역사는 고구려사와 인민 중심의 역사임에 비해 남한에서 배우는 역사는 신라와 조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한 학생들에 비해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13배에 이른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정규학교 설립과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는 대안학교의 김옥 교장선생님.

그리고 왕조 중심의 역사라 완전히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과 같아, 탈북 청소년들에게 남한에서의 공부는 힘든 일일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한 학생들에 비해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13배에 이른다. 탈북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아 자신 보다 평균 2.5세 정도 어린 학생들과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한 경우는 5~6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51.9%, 다니지 않는 비율은 48.1%로 나타났다. 반수에 가까운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현실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는 서울시내 3~4곳을 비롯해 전국 10여 군데에서 270~28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의 울타리 밖에 내팽개쳐진 상황으로 생활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생활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북한 공산주의 사회와는 달리 개인이 자신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남한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 주민들에게 있어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하루 아침에 버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 가난한 북한 정부와는 달리 부유한 남한 정부가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는 연한 기대감을 결코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막연한 의존성의 결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정착금을 제대로 활용하여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탈북자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냉전 상황에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한창이었던 1970~80년대의 초기 탈북자들에게는 거액의 정착금이 주어졌으나, 북한 체제가 위기에 봉착한 최근에는 더 이상 체제 경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대거 남한 사회로 유입되면서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정착자금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마저 남한 물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을 상대로 하는 전문 사기꾼들에게 모든 재산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탈북 청소년들도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전에 유흥문화를 접해 자신에게 주어진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은 남한 정부에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다 돈이 부족해지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학교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적 빈곤감이다. 일부 당 고위 간부 등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 공산주의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생활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빈곤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하면서 그 절대적인 빈곤은 해결했으나,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배고픔, 즉 그들의 정신을 위협하는 상대적인 빈곤이다.

고등학교 3학년 민우(가명)는 탈북 청소년 중에서는 운이 아주 좋은 편이다. 북한의 고위 경제 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민우는 다른 탈북자들과는 달리 별다른 고생 없이 남한 행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탈북에 성공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어머니와 민우는 방학을 이용해 외화벌이꾼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어디 여행이나 함께 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비행기를 탔고, 그 비행기는 민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민우네 가족의 탈북은 마무리 되었다. 민우에겐 예상치 못한 편안한 여행이었지만, 민우의 부모님에겐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피를 말리는 위험한 탈출이었음을 남한에 도착한 직후 부모님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다. 민우네가 탈북을 결심한 가장 큰 원인은 외아들인 민우의 미래 때문이었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북한의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마련해주기 위해, 고위관리라는, 고교 교사라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숨을 건 모험을 단행한 것이다.

북한 고위 경제 관리와 고등학교 교사란 이력 덕분에 민우의 부모는 모두 남한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남한 정부의 대북협력 관련 부처의 자문관으로, 어머니는 정부 산하 단체 강사로 일하게 되어, 적지 않은 정착금과 함께 안정된 수입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한의 생활 기준으로 민우네는 중산층에 속할 만큼 윤택해졌고, 민우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북한을 떠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쉽지 않은 남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한의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 갈 무렵, 민우는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우네가 살고 있는 탈북자를 위한 임대 주택은 강남학군에 속한 일원동에 위치해 있었고, 민우는 남한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갑자기 민우는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이팟이며 영상통화가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신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지? 많은 아이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하면서 그 절대적인 빈곤은 해결했으나, 지금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배고픔, 즉 그들의 정신을 위협하는 상대적인 빈곤이다.



열심히 공부중인 탈북 청소년. 이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검정고시를 보아야만 한다

술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많은 탈북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금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채워주고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들이 방학 때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왜 자신은 그럴 수 없는지? 다른 친구들은 넓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데, 왜 자신은 열 평 남짓한 누추한 임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지?

육체적인 험벗음과 굶주림이 채워진 자리에 점차 정신적인 빈곤감과 갈증이 생겨나면서 민우의 편안했던 남한 생활도 끝이 나고 말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된 민우의 일탈은 금세 저조한 학업 성적으로 나타났고, 이를 탓하는 부모님과 화로 이어졌다. 민우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비뚤어진 마음의 소극적인 문제아로 변해버린 것이다. 심지어 민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부모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란 원망을 쏟아내면서, 지금 민우의 가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최근 들어 남한 생활에 실망한 일부 탈북자들은 한국 탈출을 꿈꾼다.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체포당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들에게 북한과 남한 어느 곳도 천국은 아닌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1953년 6월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남북한은 상호 포로교환에 합의했다. 당시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친공포로들은 북한을 택해 돌아갔고, 반공포로들은 남한을 택해 이 땅에 남았다. 그리고 남과 북의 현실에 좌절하여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을 택해 스스로 유랑의 길을 택한 사람도 76명이나 되었다. 그런 아픈 역사가 66년이 지난 지금 똑 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북한을 탈출해 꿈에 그리던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다시 이 땅을 탈출해 제 3국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려 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남한은 여전히 희망과 기회 땅이다. 비록 술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많은 탈북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민족대안학교 학생인 옥희는 말한다. **북한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었지만, 이곳 남한에서는 꿈은 꿀 수 있다**고. 지금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채워주고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탈북청소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66년 전 이 땅의 현실에 좌절하고 정처 없이 무국적자의 길을 택해 이 땅을 떠난 슬픈 사람들의 아픈 과거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제안



대구 합지고등학교 | 차현정

태산불사토양 고로 능성기대 (泰山不辭土壤 故 能成其大)
 태산은 이 흙 저 흙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
 하해불택세류 고로 능취기심 (河海不擇細流 故 能就其深)
 큰 강과 바다는 이 물줄기 저 물줄기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넓다
 왕자불극중서 고로 능명기덕 (王者不卻衆庶 故 能明其德)
 왕은 여러 사람을 물리치지 않아 그의 덕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 상진왕축객서(上秦王逐客書) -

위 구절은 중국 진시 왕이 집권하던 시절, 신하들이 진나라에 와서 벼슬
 하고 있는 제후국 출신들을 다 내쫓으라고 간언하여 대대적인 축객령이
 내려졌을 때, 이웃 초나라 출신인 이사(李斯)가 진시황에게 상소한 상진
 왕축객서(上秦王逐客書)중 일부분이다. 제후국 출신을 내쫓지 말고 오
 히려 받아들여 인재로 사용하는 것이 진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역설로 진시황은 축객령(逐客令)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 사회는 현재 급변하는 시점이다. 제 3의 물결의 정보화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국제화가 되면서 결혼을 하기 위해 이주해오는 여성의 증가는 물론, 외국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남성의 증가 또한 국제결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 발표한 ‘2009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청소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나 주위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더러 볼 수 있었지만, 실제 그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들어볼 기회는 없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로써 이주여성을 인터뷰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바람을 들어보았다.

먼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아간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목을 끄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도자기, 행복한 가족을 표현한 그림 등 아이들의 순수함과 결혼 이민 여성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지원센터의 사무실 옆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곳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호티베하이 씨와 조선족이신 이주여성 김 정란씨, 그리고 현재 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박선미선생님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의 자년양육 및 교육에 대한 요청사항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베트남에서 온 호티베타이 씨와 김 정란 씨는 현재 센터에서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호티베타이 씨는 한국에서 외우기 어려운 긴 이름을 대신해 ‘미미 선생님’ 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1.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고 현재의 생활은 어떠신지** 여쭙 보았다.

호티베타이 씨와 김 정란 씨는 모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정착한 지 각각 2년 반, 1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두 분은

처음 지원센터를 이용할 때에 한국어 구사가 서툴렀으나, 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배우기, 장구배우기 등,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제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통역서비스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매우 감사해하고 만족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두 번째 질문은 센터의 역할과 지원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장래 계획에 대해 여쭙 보았다.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 선미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가족과 개인 상담,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등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위한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현재 달서구지원센터 이용 대부분의 가족들은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 정도이나 향후 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될 것이므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덧붙여, 일선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몇몇 학교에서만 부정기적인 행사형식으로 이루어 질 뿐, 정기적인 다문화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미비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학교 교사들이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있어서 더러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은 그 정서적 특성상,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참여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성장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기용하여 공개적으로 대규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방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면, 다문화 가정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교사를 양성시켜 구체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 가정에 파견되어 보내지는 양육 도우미의 차원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이 땅의 모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사양성과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과의 인터뷰

외국인 어머니를 인적자원으로 하여 ‘다문화 전담 교사’를 활용할 경우,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모국의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현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을 기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고 생각한다.

3. 세 번째로,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의 자긍심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사회제도상의 개선에 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요청 드렸다.

김 정란 씨는 앞서 언급한 **다문화 교육**에 대해 약간 다른 방안으로 외국인 어머니를 활용한 **다문화 전담 교사제**를 말하였다. 다문화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중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외국어 언어지도나 다문화 교사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회를 학교 교육에서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센터의 박 선미선생님께서도 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오히려 시골 작은 마을에서는 유대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외국어 원어민으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다문화를 소개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활동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 외국인 어머니를 인적자원으로 하여 **다문화 전담 교사**를 활용할 경우,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모국의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현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을 기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글로벌시대에 부합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더 나아가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엄마들에게 다문화 전담 교사나 통·번역가처럼 이민자에 맞는 다양하고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 청소년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녀들이 외국인 엄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도 하는 일석삼조의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4. 실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생활 속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에서나 자라나는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 보았다.

호티베타이 씨와 김 정란 씨는 현재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모국과 한국의 문화차이가 너무 커서 매우 어려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호티베타이 씨의 경우, 아

이주여성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언어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과 교육에서도 이방인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축제



기가 이제 18개월이므로 어려서 아직 못 느끼지만, 조금 있으면 학교에 가게 될텐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은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두 분은 자녀들에게 이중 언어, 즉 한국말과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칠 계획은 있으나, 우선은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어머니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르칠 만한 다양한 언어교재의 부족이 아쉽다고도 하였다.

다문화의 다양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유리한 점인 다국어의 활용능력을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기회로서 고려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예로, 대구에서 5월 30일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의 엄마 모국어 경진대회가 있다. 한국어가 아닌 엄마의 모국어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발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행사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1968년 이중 언어 교육령에 의한 이중 언어 교육과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와 같은 대치 수업이 비록 각각의 고유문화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긴 했지만 영어와 모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다문화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독일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는 것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사회 학습방법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국가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점은 바로 이중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을 위한 현지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이든, 제2외국어로서 현지어 교육하는 것이든, 이주여성의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언어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과 교육에서도 이방인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5. 다문화가정 자녀를 직접 취재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들의 성장을 바라보시면서 간접적으로 느끼셨거나 겪었던 경험에 대한 것을 여쭙보았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정보의 빈부격차로 인해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반 부모들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언어적인 면에서나 지인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교육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김 정란 씨의 대답은 직접적인 경험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취재기자의 학교생활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김 정란 씨의 아들은 예전부터 자신의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길 꺼려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그렇다는 탓으로 돌아 올까봐 많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더욱 더 예상치 못한 답변은 김 정란 씨 본인도 학부모 모임 등을 갈 때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숨겨 왔다고 하였다. 그녀 역시 따돌림의 대상이나 차별의 대상이 될까 봐 그랬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처음 정착할 당시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에 대한 특히 동남아시아나 조선족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구석구석 남아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들로 미루어 볼 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의 힘겨움이 그들의 가정과 부모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정란 씨는 다문화 가정 외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소수이나, 이주청소년도 문제라고 말하였다. 이웃의 중학교 남학생은 할아버지 국적을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학교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특히 역사, 지리 과목이 생소한데다, 언어와 용어가 달라서 공부하기도 어려우며, 더군다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마저 없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지도, 한국인으로 행복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그들의 의지대로 한국에 귀화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데 반해 선택이 불가능한 그 자녀는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한국의 부모 역할 중에서 엄마는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한국가정이나 상관없이 대부분 자녀교육을 아빠대신 도맡아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외국인 엄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으며, 자녀양육이나 교육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알 수가 없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정란 씨는 그나마 한국어가 유창하고 외모도 차이가 없어서 학부모 모임이나 공개수업, 어머니 자원봉사 같은 것은 전부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지는 못한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엄마로 살아가는 데에 당부의 말을 하였다. 외국 엄마들은 한국 엄마보다 백배 더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먼저 배워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면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들 삶의 목표인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는 장애물뿐만 아

청소년 38%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계기에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부고등학교 다문화교육



나라, 정보의 빈부격차로 인해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반 부모들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언어적인 면에서나 지인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일반적인 교육 정보를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비단 김 정란 씨 가족과 그 이웃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반의 다문화 가정과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바로 한국의 일반 청소년과 성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중된 관점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로 지난 2008년 7-8월에 걸쳐서 설문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을 들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던 반면, 이들을 친구로는 44%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관계, 즉 가족과 같은 관계로서의 발전은 14.8%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청소년들의 관점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해 부정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계를 허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38%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계기에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청소년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요구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토요일 3, 4교시를 클럽활동이나 강연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통 평일에는 모두 교과목을 수업해야하고 일반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가정과 사회에 관해 교육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한 만큼 지금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토요일을 활용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주 노는 토요일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활발한 참여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천 YMCA 청소년 사업부의 ‘무지개 사물단’은 다문화 청소년 문제를 **같이 어울림**으로 방법을 찾고자 하여 또래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나 되는 운동을 실천하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의 결연 동아리이다. 이들은 함께 공연도 다니면서, 사물놀이를 통해 '어울림'을 배우고 실천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도와 줄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러한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서부터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6. 자녀의 교육적인 면에서, 또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정란 씨는 자신의 자녀가 성장기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칫 빗나갈까 봐 걱정될 때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신연령을 아주 낮게 인식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자녀상담이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러한 상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참 아쉽다고 했다. 대구에는 청소년상담소가 1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지, 그 외 다른 외국인 엄마들은 거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자녀들이 계속 자라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자녀들과의 마찰이나 교육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좀 더 활성화 하거나 만들고, 홍보수단을 체계화해서 이용률을 늘리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의 자긍심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사회제도상의 개선에 대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정란 씨는 교육이나 사회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보편적으로 다문화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대구자원봉사박람회에서 다문화가정을 홍보할 때, 방문했던 청소년들이 잘 알진 못하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을 보고 다문화 교육의 효과에 대해 가능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외국인 어머니 나라의 좋은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수업을 해주고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능력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을 해준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친구들과도 어려서부터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정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담임하고 있는 선생님의 칭찬과 긍정적 소개 또한 중요하다. 즉,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도와 줄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마치고 센터를 나서다가 다문화 가족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Rainbow, 서로 다른 얼굴색과 문화



한국어교육지원사업



우리문화 이해 교육



식문화 교육



다문화가족 교육

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빛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라는 문구가 와 닿았다. 다른 색깔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희망의 빛나는 무지개가 되듯이, 한국사회 속의 다양한 문화를 넓게 포용하여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가 그들의 꿈을 당당하게 펼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흔한 칸을 비워놓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취재를 마치면서, 한국이 다문화를 아우르는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Rainbow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제안을 일곱 가지로 간추려 보았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다문화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문화 전담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물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전담교사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실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다문화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위 제안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통·번역가 또는 다문화 전담 교사와 같은 일반 국민과 달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취업한다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세계화된 현대 사회 흐름에 맞춰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게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이중 언어 교육이 중요한 만큼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현지어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교육 체계가 결합된 언어 교육이 완성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다문화 언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사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사물단 활동을 통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또래 일반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배우는 '김천 YMCA 무지개 사물단' 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모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국어 경진대회' 처럼,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자녀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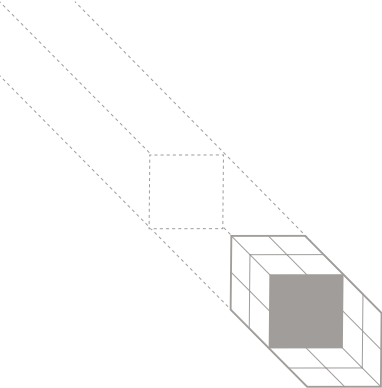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아이를 위한 자기 계발이 요구된다. 자기 계발이란,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국어 공부를 통해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성장할수록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와 심리적인 불안과 가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고민이나 생각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자녀 교육적인 면에서 정보력이 많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도와 줄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상담 기관들이 요구된다.

일곱 번째,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리포터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문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평일에는 교과목을 수업받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클럽 활동이나 초청 강연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요일 3, 4교시에 다문화관련 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과 일반 청소년이 다문화의 다양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을 우리나라 사회에 숨겨진 **글로벌 국가성장의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자녀를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양성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잠재 가능성을 지닌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과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청소년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지만 함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써 인식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변화는 한 소년, 소녀의 미래이다.

-부산지역 다문화에 관한 조사-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 김지민

다문화란 사전적 정의로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한민족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민족, 다국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새터민 등이 80만 명 이상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부부들의 14%가 외국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이며,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산의 결혼이민자 가족은 2006년 3,996명에서 6,685명, 2008년 8,488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 거주 외국인 역시 2006년 2만 2433명에서 2007년 2만 8,591명 2008년 3만 3192명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옥귀 여성정책담당관은 부산의 다문화 지원 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내년엔 이런 지원체계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활발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자원 봉사자들은 무엇을 느끼며, 여러 단체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아시아공동체 학교의 아이들

밝게 뛰어다니고
아무 것도 몰라야 할
순수한 아이들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고통 받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
우리는 모두 같은 친구라는
인식만 있다면 더 이상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하나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고민

5월 26일 방송 된 KBS '러브인 아시아'에서 부산의 다문화 가정아이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 '아시아 공동체 학교' 의 3년을 보여 주었다. 32명의 다문화 가정아이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 공동체 학교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학생들이 희망을 키우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인 '정현하' 를 만나 보았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현하는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 순 한국인이 아니라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지내는 현하이지만 사춘기여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항상 복잡하다고 했다. 현재 현하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 성적과 외모였다. "수학이랑 국사가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국어랑 영어랑 동시에 배워서 어려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이제는 수학이랑 국사가 너무 어려워서 매일 공부해도 정말 모르겠어요." 라며 대답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현하는 조금은 까만 피부색과 이국적인 얼굴로 고민을 많이 했다. 가끔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 힘들어 했다고 한다.

현하와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많은 걸 느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에 이 아이는 상처를 입었다. 장래희망이 사회복지사인 현하는 자신이 겪었던 고민을 다른 친구들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작은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이상 현하를 갈등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하는 지금 일반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는 현하와 같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대안학교로 가거나, 아예 학교를 가본 적 없는 친구들이 많았다. 현하역시 지금은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놀림거리가 되어 많이 힘들어 했었다 한다. 현하는 지금 동생이 걱정이다. 소극적인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유치원에서는 놀림 받는 걸 적응하지 못해 결국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된 현하의 동생이 학교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현하는 자꾸만 슬프다고 한다.

밝게 뛰어다니고 아무 것도 몰라야 할 순수한 아이들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고통 받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졌다. 유치원, 초등학생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친구**라는 인식만 있다면 더 이상 이 다문화 가정어린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둘- 자원봉사자의 고민

부산해양대학교에 다니는 정민지 언니는 대학생 멘토링으로 매주 한 번씩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한글과 교과공부를 도와준다. 민지언니는 항상 봉사활동을 갈 때 마다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음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 개를 알고 싶어 해도, 언니가 줄 수 있는 게 두 개뿐이라 항상 아쉽고 미안하다고 한다. 부산에는 멘토링 제도가 발달해 있어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멘토링이나 시민단체, 청소년 진흥 센터 등에서 모집하는 멘토링에 지원을 하면 쉽게 멘토링을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멘토링 제도에 참가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멘토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아이들은 턱없이 많다. 또한 멘토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없다. 멘토 활동에 지원을 하여 봉사시간외에 아이들 간식 사 줄 정도의 지원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멘토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 셋 - 우리의 노력

다문화 가정을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부의 노력, 지자체 시민단체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구분되어 질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더 확실히 해야만 한다. 정부는 거주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 세부 정책들의 수준까지 일관된 관점과 방향에서 추진해야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을 늘려 이들이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정부가 이들을 감싸 안는 정책을 펴야한다. 지자체, 시민 단체는 가장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한다. 대학생의 멘토-멘티 제도, 한국어 교실, 모국어 교실, 대안학교, 문화체험 등으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한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만 바라봐야한다. 오히려 동정, 연민을 느낀다면 정말 다문화 청소년들이 동정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마치 백인이 흑인을 보는 것처럼 피부색하나로 우리가 그들보다 우세,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다양함을 인정해야한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우리와 같다는 그 인식 하나가 이 청소년들에게 희망, 꿈,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제도적 문제도 문제지만 먼저 국민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 거리낌 없이 하나 될 수 있어야한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우리와 같다는 그 인식
하나가 이 청소년들에게
희망, 꿈,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제도적 문제도 문제지만
먼저 국민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 거리낌 없이
하나 될 수 있어야한다.



문화체험을 하는 센터의 활동



멘토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교육



학교 순회를 통한 인식변화교육



다문화 청소년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야기 넷- 부산의 작은 노력

부산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멘토링 제도의 시행,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교육, 다문화 축제, 다문화 청소년들의 상담,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의 문화체험캠프, 한글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부산에만 20여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다름’과 ‘틀림’을 가르쳐주어 똑같은 인격과 인권을 가진 다문화가정어린이들의 사회성과 사회문화 적응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지자체 단체, 청소년 센터 등에서 다양한 정책연구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토론회가 자주 이루어진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활발한 연구와 토론으로 부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활동은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주민센터 활용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이 217곳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5곳이고 이러한 지원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족 부모의 모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워 세계화 시대의 성숙한 ‘다국적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각종 문화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부산사랑티켓’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를 제작해 9월중 의료, 교육, 육아, 교통, 복지 시설에 관한 정보, 각종 지원정책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도움 요청,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요성처럼 많은 지원이 늘어나 다행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완의 프로젝트이다. 다문화 공생사회를 위해 정부, 지역 사회,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모두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역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고 바꿀 수 있는 인재이다.

이야기 다섯 -나의 이야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완의 프로젝트이다. 다문화공생사회를 위해 정부, 지역사회,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모두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생의 6~7명 가운데 한명은 외국이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차지한다. 만약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안고 가지 못하고 소외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청소년들이 미국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사건처럼 우리 사회에 반기를 들고 불행한 사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주역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역시 포함되고, 부모님과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고 바꿀 수 있는 인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만 한다.

부산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다녀왔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진실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걱정을 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토론을 하셨다. 토론 중,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배경과 조건도 양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이주노동자 가정이나, 재혼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경우 등 다양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책 역시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다문화교육 역시 경직된 동화주의의 틀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무조건 대한민국화 시키려는 사고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로 부상하고 함께 각자의 개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photograph of several wooden shelves mounted on a wall. The shelves are filled with numerous white ceramic mugs. Some mugs have unique, sculptural handles, while others are standard. The lighting is warm and even, highlighting the texture of the wood and the smooth surface of the ceramic.

₩ 칼럼 **일본**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지원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가령, 가나가와 현은 1998년 외국인회의를 설립, 외국인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회의는 외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내의 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연 8회 정도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회의는 일종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시정사항을 시 당국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다. 특히 공장지대가 밀집돼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몰려 있는 가와사키시는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의 설치를 시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도시에는 국제교류센터가 건립돼 있어 이주민들의 일본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가령, 1981년 창설된 요코하마 국제교류센터는 상담, 국제이해교육, 다언어정보제공, 외국인자녀들의 교육지원 등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는 인구 360만명의 대도시로 2008년 현재 150여 개국 75,000여명(시 전체인구의 약 2%)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중국계가 가장 많고 재일동포, 필리핀, 브라질 출신 순이다. 2005년 9월 문을 연 신주쿠다문화공생센터도 일본어학습코너, 자료정보코너, 외국인상담코너, 국제이해강좌나 국제교류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주쿠 구는 전 주민의 10%가 외국인이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정과 일본계 브라질인 등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2005년부터 다문화공생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과제로 설정했다. 다문화공생정책은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異)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문화정책 가운데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언어적 지원이다. 특

히 가나가와현은 방과 후 일본어 교실에 일본어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가와사키 시의 경우 학교에 외국인 자녀가 5명 이상 있으면 전담교사를 별도로 뒀다. 일본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 측은 국제교류센터 등에 통역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에 배치되는 통역자원들은 주로 국제교류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통역의뢰 요청이 늘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통역요원들을 배치해 외국인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외국인들의 일본사회적응을 돕고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 국제교류센터의 경우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은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 등 7개국 언어로 이뤄지는데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여러 나라의 언어로 발행되는 소식지도 직접 편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는 1년에 두 번 실시된다.

2001년 7월 오다이바에 문을 연 도쿄 국제교류센터는 일본에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800여개의 최신식 방과 국제회의장, 유학정보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월 임대료가 시중의 반밖에 안 돼 많은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이처럼 일본은 2000년 이후부터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찍 뿌리내린 자원봉사문화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통역 인력풀을 만들어 병원이나 보건소, 학교 등에 배치해 외국인과 자녀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명숙 원장님(사진 왼쪽)과 미지센터 최형근 소장님이 교류협정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개발 전문가 연구 포럼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6일 미지센터, 한중미래숲과 함께 서울시청소년문화교류센터 2층(남산 미지센터)에서 제2회 글로벌 역량개발 전문가 연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2월에 열린 첫 번째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은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을 대주제로 하였다. 포럼 진행에 앞서 **미지센터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사진 참조). 포럼 1부에서는 미지센터 홍광현 사업부장과 윤지혜 교육문화사업팀장이 '국제활동을 통한 청소년 글로벌리더십 개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수정 부소장이 토론을 하였으며, 2부에서는 한중미래숲 이성길 팀장이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한중미래숲 녹색봉사단 참가자 최가영이 토론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청소년 인재육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전략을 수립하는 자리가 되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 학술대회 모습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월 22일(금)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회장 임영식 중앙대 교수)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역할'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명지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본원 이창호 박사는 청소년의 글로벌 인재개발정책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고 한국체육대학의 길은배 교수와 명지전문대 오승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대구한의대 한상철 교수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역량개발을 위한 정부와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세션에서는 일본 쇼케이학원대학의 강영배 교수가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이론, 실제,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는 등 모두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NEWS

위촉 청소년 리포터 초청 오리엔테이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9일(토) 오후 처음 위촉된 청소년 리포터들을 초청,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숙 원장님을 비롯 김현철 기획조정본부장, 오해섭 대외협력팀장, 이창호 박사가 참여했고 청소년 기자로 선정된 6명의 리포터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원장님의 환영말씀, 위촉장 수여, 리포터활동시 유의사항전달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가 끝난 후 근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청소년리포터 제도는 본원이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NYPI YOUTH REPORT』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원은 지난 3월 모두 12명의 청소년리포터를 선발한 바 있다. 리포터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에 관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비며 취재를 할 예정이다.



이명숙 원장님(사진 가운데)이 청소년리포터들에게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참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석해 기관 홍보부스를 마련, 기관 홍보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특히 참가 청소년들에게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해 왔으면 하는지를 적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후원했으며 내년 박람회는 부산서 개최될 예정이다.



학술정보회원 가입 안내

○ **회원 자격 및 대상** : 본원 연구 결과물을 원하는 개인 및 기관

○ **회비 및 회원기간**

- 일반회원 : 20,000원 / 년
- 전문회원 : 50,000원 / 년
- 기관회원 : 100,000원 / 년
- 회원기간 : 연구보고서(9.1 ~ 8. 31) / 한국청소년연구(1. 1 ~ 12. 31)

○ **회원에게 대한 특전**

유형	회원별서비스	연회비	공동서비스
일반회원	- 한국청소년연구(학술논문집) : 연 4회	20,000원	- 본원 자료실 자유이용 - 본원 발간물(기관고유과제보고서) 구매 시 할인 혜택(정가의 30%) - 메일링서비스 - 기타 가능한 서비스
전문회원	- 연고보고서 :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10종 (기관고유과제에 한하며, 회원이 직접 선택함) - 한국청소년연구(학술논문집) : 연 4회	50,000원	
기관회원	- 연고보고서 :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20종 (기관고유과제에 한하며, 회원이 직접 선택함) - 한국청소년연구(학술논문집) : 연 2회	100,000원	

○ **회원가입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www.nypi.re.kr)를 작성하여, 입금증과 함께 우편이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입방법**

- 납입은행 : 농협 368-17-001637(예금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입문의**

- 주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팀
- 전화 : 02)2188-8877 / 8844 FAX : 02)2188-8819
- Home Page : www.nypi.re.kr
- E-mail : docu@nypi.re.kr



국 제결혼의 증가, 탈북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전통적 단일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도 최근 다문화사회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단일민족이라는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우리사회의 다수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다원주의 사회의 경험 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은 뿌리 깊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단일민족의 신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차별, 언어적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